

남북한 방송언어의 차이에 대한 기초 분석

이창환¹, 김경일^{2*}, 박종민³

¹서강대학교 심리학과, ²아주대학교 심리학과 ³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Preliminary Analysis of Language Styl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Broadcastings

Chang H. Lee¹, Kyungil Kim^{2*} and Jongmin Park³

¹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³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기간의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언어적 이질성의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남북한 방송언어 비교하였다. 연구의 주목적은 남북한 언어 간 차이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사용 실태에 대한 토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남북한의 주요 방송사 뉴스 동영상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국어분석프로그램 KLIWC (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방송언어는 KLIWC의 각 차원에서 남한 언어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정서적 단어, 인지적 단어, 사회적 단어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북한 방송에서는 인칭대명사나 품사와 같은 언어학적 기능어에 있어서도 남한방송보다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예비적인 심리학적 해석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South and North Korean broadcasting languages to measure the language differences due to the long segregation. This study would provide fundamental database on the language us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KLIWC analyzed the text that was selected from news clips of South and North Korean broadcasting agencies. The results showed that North Korean languag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outh in terms of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words. In addition, North Korean broadcasting used more person pronoun and a part of speech than South Korean broadcasting. Psychological interpreta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 language differences.

Key Words : South and North Korean broadcastings, Korean language analysis, KLIWC

1. 서론

남, 북 분단이 60년이 넘는 시점에서 그동안 남, 북한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나 심리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심리적 기제와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 언어적 차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남북한 국민이 어떠한 언어적 유형을 많이 쓰고, 어떠한 내용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

는 실정이다.

일찍이 주시경 선생은 “언어가 어떤 사회 현상보다도 불변의 민족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유전물이며, 민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바 있으며, 독일의 피이테(J. G. Fichte) 역시 “한 민족의 특성은 그들의 언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언어가 국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1]. 이렇듯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 언어라

이 논문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A-B00280)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일부 지원에 의한 연구임.(200910046)

*교신저자 : 김경일(kyungilkim@ajou.ac.kr)

접수일 10년 06월 01일

수정일 (1차 10년 08월 12일, 2차 10년 08월 26일)

게재확정일 10년 09월 08일

는 것을 일반적 사실로 주지한다면,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현재 각 문화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를 알기 위한 정량적 토대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한 뉴스방송언어차이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2. 선행이론 연구

기존의 남북한 언어 비교는 남북한의 언어가 역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 어휘 수준에서 단어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며 언어학적인 차이는 무엇인가를 주로 연구해왔다. 또한 띄어쓰기, 맞춤법 등과 같은 문법수준에서의 차이와 동음이의어 분석과 같은 언어의 형태적 차이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본질적인 언어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언어의 내용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언어의 논리성과 복잡성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사회적인 차이로 인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내용상 그리고 언어 구조상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차이를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정량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종속측정치를 정량화 시키는 것이 다른 연구자에 의한 반복적인 검증을 보장하고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의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육훈[2]은 몇 가지의 관점으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설명했다. 우선 언어 정책상의 차이이다. 북한은 언어를 ‘혁명과 건설에 힘 있는 무기’라고 주장하고, 남한과 달리 한자 사용을 금지하고, 외래어를 모두 한글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둘째, 자모배열 순서와 명칭상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언어가 자모의 배열과 명칭들이 다르다는 것인데, 남한의 자모 수는 24개인 반면, 북한의 자모 수는 40개이다. 이러한 자모수의 차이는 사전과 컴퓨터 사용에 있어 큰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세 번째는 맞춤법의 차이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맞춤법의 차이는 맞춤법의 개념을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남한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2]’는 것이 기본 방침이 반면 북한의 경우는 ‘조선말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이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

가 나는 대로 적거나 습관을 따르는 것을 허용[2]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 네 번째로 제시되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이질적인 문법들인데, 예를 들면, 북한의 ‘토’와 남한의 ‘조사’가 가지는 차이, 사동형과 피동형에서의 남북한 언어 차이, 띄어쓰기의 차이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휘 어미의 본질적 의미 차이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칭(예, 안해와 아내)의 차이와 오해 방지 쉬운 “괜찮습니다”와 “일없습니다”의 표현을 들어 실생활에 있어 남북한 언어 사용의 차이를 육훈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박시균과 권병로[3]는 남북한 언어를 발음과 어휘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발음의 경우 발음 원칙, 모음, 어두의 비음 ‘ㄴ’과 유음 ‘ㄹ’, 겹받침, 음의 동화, 음의 첨가, 호격 조사 ‘아’, 한글 자모 받침의 연음 시 발음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발음에 관하여 남한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합(1988년 표준어 규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1988년 ‘조선말 규범집’에 따라 ‘조선말 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모음에서 발생하는 남북한 발음차이의 경우 ‘ㄷ’의 경우 북한어는 ‘ㄱ, ㄷ, ㅎ’ 뒤에서만 <예>로 발음되며, 남한은 ‘예, 레’ 말고는 ‘예’가 <예>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남한에는 어두에 ‘ㄹ’이나 ‘ㄴ’ 선행모음을 동반하는 ‘ㄴ’의 소리가 오면 안 되는 두음법칙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음의 동화에 있어서도 북한은 ‘ㄹ’이 근접한 비음(ㄴ, ㄷ, ㄹ)의 영향으로 비자음화를 허용하지 않는 특징(예, 식량의 발음 - 남한<식량>, 북한<식량>)이 있다[3]. 이외에도 발음에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박시균과 권병로[3]는 호격조사 ‘아’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남북한 공히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조사, 접미사의 앞에 놓인 받침은 원래대로 발음하도록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북한말은 부름의 조사 ‘아’앞에 놓인 ‘ㅅ’은 <ㄷ>으로 발음하도록 (예, ‘우리의 영원한 벗아 <남한 - 버사> <북한 - 버다>)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상준[4]은 6.15 남북정상회담의 남북한 TV보도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방송보도의 비언어적 메시지 특성에 관한 비교를 하였다. 그에 따르면 북한 언론의 목적은 “인민을 교양, 개조하고 조직하는 유력한 선전, 선동의 수단이며, 사상적 무기이자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하나”(p.176)이므로 방송 또한 체제 수호, 자주성의 강조, 그리고 당의 정책을 비판 없이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방송언어는 남한에 비해 보다 구어체적이며 단순하고 감정적이고 장황한 수사적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남한 방송의 비언어적 특성으로는 시청자에게 호감을 주는 부드러운 뉴스인 반면 북한 방송은 목적성을 띠며 사실적 내용 전달보다는 인민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방송원의 중립적 자세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표시(예, 지지, 반대, 기쁨, 슬픔 등)가 분명하게 반영한다. 또한 남한의 뉴스 전달 속도는 생동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1분당 평균 330음절) 보다 분당 약 20음절 빠른 평균 350음절을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별에 따른 뉴스분류, 의상과 표정도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들의 언어 사용방식과 유형을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현재 가장 의미 있는 연구물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최근에 개발된 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이다. 이 언어분석 프로그램은 최초로 James Pennebaker에 의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개발된 것으로서, 영어권 심리학계는 물론 관련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언어에서부터 추출 가능한 다양한 변인들과 이에 관련된 심리적 현상들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5]. 그 결과 언어에 반영되는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여부[6, 7], 우울증 등 정신병리 현상과 관련된 언어 변인들의 도출, 성격 및 성취 욕구, 사회적 위기 상황 시 대중의 평균적인 언어적 변화, 자살에 대한 노출 가능성, 면역지수 CD-4 (t-lymphocyte) 세포의 양, Hepatitis B 항체 수준, 글쓰기 대 말하기, 허위진술 여부, 나이에 따른 변화, 다문화권 비교, 실직자 언어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그 언어적 반영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8].

이러한 영어권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LIWC의 한국어 분석프로그램인 K(Korean)LIWC가 개발되었다(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k-liwc.ajou.ac.kr>)[9]. LIWC와 마찬가지로 KLIWC 역시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언어 분석과 타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10, 11, 12].

3. 연구 방법 및 자료수집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LIWC[9]와 같이 널리 쓰이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언어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남북한 언어를 비교하고자한다. 이에 대한 첫출발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표준어를 반영하는 방송뉴스

언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송언어가 일반 국민들의 언어 사용과 흡사하며 언어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TV 등 영상매체의 성장이 급진전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남북한 간 정치 분야를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산, 증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 간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술적 가치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간의 이해의 격차를 좁혀 상호간 보다 발전적인 관계형성을 이루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KLIWC를 통하여 분석되게 될 언어변인은 일반 내용 단어들을 포함하여 정서, 인지, 사회 등을 반영하는 심리적 단어들과 기능적 변인의 비율이다. 기능적 변인이라함은 전체 단어수를 비롯하여 문장 당 단어 수, 조사, 형태소, 의문문의 비율 등 실제 의미와는 관계없지만 전체 텍스트의 구조와 복잡성을 결정짓는 변인들이다. 따라서 남북한 방송언어간 내용적 차이 뿐 만 아니라 글의 위계적 체계적 차이에 관한 토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3.1 샘플 수집 절차

우선 북한의 뉴스 언어를 분석대상은 2009년 8월에서 2010년 1월에 걸쳐 방송된 KBS 남북의 창에 북한 방송 동영상이었다. 각 방송 언어는 프로그램의 스크립트를 복사하여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붙여넣기를 하여 수집되었으며, 방송 내용을 보면서 스크립트가 방송 내용과 다를 경우에 수정을 하였다. 추후 KLIWC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기 위해 날짜별로 Text 문서 파일 형태로 변경하였다. 수집된 스크립트 내용은 수집된 날짜, 세부 코너, 발화자의 성별, 발화의 주제와 함께 기록되었다.

그 결과 총 166회분의 방송 분량의 스크립트가 수집되었다. ‘남북의 창’에서 주로 다루지는 북한 방송의 내용은 프로그램 내의 각 섹션에 따라 달랐다. ‘기획리포트’ 코너에서는 주로 북한 중앙TV의 정치, 외교, 사회 관련 뉴스들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2009년 8월 29일 방영된 조선 중앙 TV 뉴스 중 ‘북한 해군 경비함이 동해상에서 북한 영해를 침범한 남한 어선 1척을 나포했다.’라는 내용이나, 2007년 12월 10에 방영된 북한 중앙 TV 뉴스 중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성 차관보가 북한에 방문했다.’라는 내용 등이다. ‘북한 상식 백과’와 ‘클로즈업 북한’ 코너는 주로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문화, 서민 생활 관련뉴스, 정보 프로그램, 드라마나 영화 등등 내용이 다양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2007년 7월 16일 방영된 내용인 ‘평양 냉면집 옥류관’에 대한 광고,

2009년 1월 3일 방영된 ‘북한의 명절음식’에 관한 방송 등이 있었다. ‘북한말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주로 TV 드라마와 영화 등이 다루어졌고 주요 내용은 남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북한 언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면, 2009년 5월 2일 방송에서는 영화 ‘고결한 삶’ 중에서 ‘도깨비 감투끈이다.’라는 말의 쓰임새를 다루고 있었다. ‘통일을 여는 발걸음’, ‘꿈을 심는 사람들’ 코너에서는 새터민의 정착기가 주 내용으로써 새터민들의 인터뷰 및 실생활에서의 대화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2006년 6월 18일에 방영된 새터민 전문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 밖에 ‘의학 상식’ 코너에서는 북한의 의료기법 및 민간요법 등의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2006년 10월 1일 방송에서는 ‘잘 익은 배를 썰어서 사랑에 절여 먹으면 기침, 가래가 없어질 수 있다는 민간요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남한 방송언어 수집은 2009년 8월에서 2009년 10월 사이의 KBS 9시 뉴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세 달간, 각 달마다 일주일씩 21회분의 9시 뉴스 방송 스크립트가 수집되었다. 내용은 주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날씨 등과 관련된 뉴스 보도였다. 수집된 내용은 아나운서의 멘트, 리포터의 멘트, 인터뷰 등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수집 방식은 북한과 동일했다.

3.2 분석절차

수집된 방송 스크립트 샘플 중 뉴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영상의 내용이 텍스트로 전사된 것들 중에서 남한 각 21개를 무선적으로 뽑았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전사된 뉴스 동영상 내용을 KLIWC로 분석하였다. KLIWC 분석방식은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특정 텍스트내의 단어들을 유형별로 사용비율을 자동적으로 계산해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각각의 전사된 뉴스 텍스트에 대하여 KLIWC는 명사, 대명사 등 9개 기본 품사별 사용빈도, 감정적 단어와 인지적 단어 등 심리적 단어의 사용빈도, 28개의 각종 내용단어의 사용빈도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텍스트가 KLIWC에 투입되면 즉시적으로 계산되는 방식은 아니고 단어하나하나에 대하여 중의성을 분석자에게 되묻는 단계가 있다. 일례로 “가는”이라는 단어는 가늘다, 가다, 가+는 등 다양한 뜻이 있기에 KLIWC는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을 산출하며 분석자가 이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어 단어는 대부분의 단어가 중의적이기에 A4용지 반장 만 되더라도 텍스트에 대한 중의성 판단은 30-40분가량의 작업이 필요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획득된 방송 언어 자료를 KLIWC의 두 차원인 언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남북한 간에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가설검증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연구가 아니고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토대 연구이기에 탐색적 목적에 기초하여 유의미한 변인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위해 사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Cohen[13]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0.2에서 0.3일 경우 작은 효과이며, 0.5 전후가 중간 정도의 효과, 그리고 0.8 이상이면 매우 큰 효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탐색적 목적을 고려하여 0.4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임과 동시에 t 검증에서 .05 이하의 유의도 수준을 지닌 차이를 남북 언어 간에 보이는 KLIWC 변인들만을 표 1과 2에 보고한다. 먼저 표 1에서 나타난 언어적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절/문장, 즉 문장 당 어절의 비율로 남한 언어 사용자들이 북한 언어 사용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비율은 언어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언어가 단순할수록 걱정이나 근심이 적은 경향을 보인다[16].

그리고 북한 언어 사용자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인칭 대명사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개별 인칭 대명사와 관련된 심리적 상태의 추정은 다양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중심적이고 우울한 사람일수록 1인칭 단수 대명사의 사용을 많이 하며, 다른 기능어의 종류와 수도 단순해지는 반면, 정상인의 경우에는 글이 복잡하고 3인칭 대명사를 자주 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8]. 그런데 북한 언어 사용자들은 모든 인칭 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현대 남한 언어 사용 경향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인칭 대명사의 생략’이 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차이이다.

그 외에 북한 방송 언어에서는 지시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미 등의 높은 사용빈도가 관찰되었고, 남한 방송 언어에서는 일반명사, 고유명사, 양수사, 조사, 수관형사, 접미사, 영어/외래어 표현 등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방송언어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와 같은 주요 품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가 더 역동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형용사, 부사, 감탄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정교화 시켜 줌으로써 문장이 역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남북한 방송언어 간 KLIWC 언어적 차원 비교

변인	남한 M(SD)	북한 M(SD)	t	p	효과 크기*
어절/문장	11.94(0.58)	10.53(2.91)	2.66	0.01	0.61
형태소/문장	21.97(1.21)	18.81(5.59)	3.09	0.00	0.71
일반명사	26.57(1.40)	21.37(2.38)	10.01	0.00	2.54
고유명사	4.94(0.91)	2.54(1.25)	7.55	0.00	2.12
일반-고유명사	0.30(0.08)	0.23(0.08)	3.43	0.00	0.96
의존명사	0.78(0.11)	0.86(0.19)	-2.10	0.04	0.53
지시대명사	0.37(0.08)	0.82(0.28)	-8.61	0.00	2.02
인칭대명사	0.47(0.12)	1.69(0.43)	-15.14	0.00	3.54
1인칭	0.05(0.05)	0.32(0.16)	-9.04	0.00	2.14
2인칭	0.00(0.00)	0.05(0.07)	-4.21	0.00	0.95
3인칭	0.10(0.05)	0.45(0.23)	-8.37	0.00	1.94
1인칭복수	0.11(0.06)	0.43(0.18)	-9.17	0.00	2.16
3인칭복수	0.00(0.00)	0.01(0.03)	-2.10	0.04	0.48
양수사	1.06(0.21)	0.35(0.28)	9.91	0.00	2.78
조사	17.66(0.50)	15.30(1.43)	8.54	0.00	2.03
이다조사	1.24(0.18)	0.91(0.29)	4.64	0.00	1.30
동사	8.36(0.28)	10.98(0.98)	-14.21	0.00	3.33
형용사	1.67(0.15)	3.13(0.51)	-15.29	0.00	3.58
관형사	0.13(0.08)	0.25(0.12)	-4.28	0.00	1.10
수관형사	2.05(0.36)	0.79(0.29)	14.15	0.00	3.97
일반부사	1.83(0.21)	2.99(0.49)	-11.79	0.00	2.86
감탄사	0.12(0.04)	1.05(0.76)	-6.84	0.00	1.55
접미사	0.15(0.05)	0.04(0.06)	7.61	0.00	2.14
어미	15.02(0.37)	18.20(1.23)	-13.70	0.00	3.22
영어	0.30(0.18)	0.03(0.06)	6.75	0.00	2.25
명사추정외래어	1.03(0.23)	0.28(0.19)	12.85	0.00	3.61

* 각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effect size; Cohen's d)는 절대값.

한편 KLIWC의 또 다른 차원인 심리적 차원의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보통 기존 KLIWC 연구에서는 3-40%의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변인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들이 관찰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북한 방송에서 유의미하게 많은 감정 및 정서적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뉴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시청자에 대한 감정적 호소의 경향성이 수량적 데이터로도 입증됨을 의미한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방송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라든가 낙천성과 같이 정적인 감정 단어가 남한방송보다 많이 사용되며 부정적인 정서단어는 적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뉴스가

전반적으로 호전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일반적 상식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차이가 방송의 세부형태가 보다 동일하게 통제된 상황에서도 일관적으로 나올 것인지는 아니면 선전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한 북한방송과 사건 및 사고 내용이 많은 남한 방송의 구성 자체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된 결과가 바로 슬픔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에 있어서는 북한방송의 사용량이 오히려 남한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분명한 점은 북한 뉴스 방송의 감정 및 정서적 변화의 스펙트럼이 다양함을 의미하며 남한의 뉴스 방송이 매우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친구, 가족, 학교, 직장, 타인참조, 체면 등 사회적 과정과 관련된 단어의 사용빈도가 북한방송에서 많

[표 2] 남북한 방송언어 간 KLIWC 심리 차원 비교

범주	변량	남한 M(SD)	북한 M(SD)	t	p	효과 크기*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3.40(0.31)	3.86(0.70)	-3.25	0.00	0.79
	긍정적인 정서	1.08(0.22)	1.81(0.44)	-7.94	0.00	1.96
	긍정적인 느낌	0.61(0.14)	1.23(0.37)	-8.48	0.00	2.03
	낙천성 또는 활동성	0.39(0.10)	0.48(0.21)	-2.20	0.03	0.54
	부정적인 정서	1.88(0.18)	1.57(0.49)	3.27	0.00	0.78
	불안	0.13(0.05)	0.18(0.13)	-2.05	0.05	0.49
인지적 과정	화	0.55(0.12)	0.36(0.16)	4.54	0.00	1.28
	슬픔 또는 우울	0.14(0.10)	0.20(0.13)	-1.70	0.10	0.45
	원인	0.44(0.14)	0.62(0.19)	-3.50	0.00	0.98
사회적 과정	기대	0.85(0.21)	1.18(0.33)	-4.10	0.00	1.15
	제한	0.83(0.14)	0.58(0.17)	5.62	0.00	1.58
	확신	1.16(0.23)	1.29(0.23)	-2.05	0.05	0.58
사회적 과정	감각&지각적인 과정	1.70(0.25)	2.61(0.58)	-7.88	0.00	1.91
	사회적 과정	3.08(0.36)	5.13(0.65)	-14.75	0.00	3.71
	체면	0.25(0.07)	0.48(0.20)	-6.09	0.00	1.44
	타인참조	0.28(0.09)	0.82(0.29)	-9.84	0.00	2.33
	또래(친구)	0.11(0.05)	0.45(0.27)	-7.00	0.00	1.61
	가족	0.32(0.19)	0.63(0.30)	-4.53	0.00	1.16
	인간	0.44(0.13)	0.84(0.24)	-7.82	0.00	1.96
	학교	0.88(0.20)	1.16(0.87)	-1.77	0.09	0.41
	직장 & 일	0.89(0.27)	0.68(0.30)	2.48	0.02	0.70
	성취	1.00(0.20)	0.88(0.30)	1.74	0.09	0.49
	집	0.17(0.08)	0.32(0.30)	-2.12	0.04	0.60
	운동	0.34(0.13)	0.16(0.18)	3.95	0.00	1.11
	TV & 영화	0.09(0.07)	0.13(0.10)	-1.75	0.09	0.46
	음악	0.03(0.06)	0.08(0.13)	-1.98	0.05	0.48
	돈 & 재정적이슈	0.90(0.33)	0.43(0.21)	5.81	0.00	1.79
생물학적 과정	신체적 상태와 기능	1.70(0.24)	2.03(0.55)	-3.04	0.00	0.74
	성 & 성징	0.06(0.07)	0.15(0.12)	-3.39	0.00	0.85
	식사 & 음주 & 다이어트	0.39(0.10)	0.76(0.31)	-6.30	0.00	1.49
형이상학 적 이슈	수면 & 꿈	0.09(0.03)	0.34(0.15)	-9.06	0.00	2.09
	형이상학적 이슈	0.50(0.10)	0.39(0.17)	2.82	0.01	0.71
속어 이슈	속어	0.27(0.07)	0.10(0.13)	5.56	0.00	1.56
	맹세어절	0.25(0.06)	0.09(0.12)	5.54	0.00	1.55

* 각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effect size; Cohen's d)는 절대값.

았으나 성취, 운동, 재정적 이슈와 관련된 단어의 사용빈도는 남한 방송에서 많았다. 이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을수록 가족과 사회관련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가 발달함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인지적 과정 범주와 관련하여서 흥미로운 사실은 원인, 기대, 확신관련 변인에 걸쳐서 북한방송의 사용빈도가 남한보다 많았다. 이러한 연유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필요하겠지만, 북한방송에서는 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보도 외에도 뉴스와 관련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확신, 향후기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 외에 수면, 성 등 신체와 관련된 단어의 사용빈도

역시 북한방송에서 높았으며, 최근의 식량문제를 반영하듯이 식사와 관련된 단어의 사용빈도가 북한방송에서 월등히 많았다. 반면, 형이상학적 이슈와 관련된 단어의 사용빈도는 남한 방송에서 많았으며 의외로 속어나 맹세관련 단어의 사용빈도가 남한방송에서 많았다. 하지만 속어나 맹세관련 단어의 경우는 전체 텍스트 내에서 그 사용비율이 0.3%인 관계로 집단 간 비교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방송언어 간에는 언어프로그램의 많은 변인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거의 모든 언어학적 변인에 있어서 남북한 언어 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심리학적 단어와 내용단어

들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토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심층적이고 이론에 기반한 심리학적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박시균, "남북한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 2: 화술과 화법, 방송화법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39집, pp. 117-141, 2004.

[2] 육훈, "남북한 언어 차이", 새국어교육, 53호, 255-267, 1996.

[3] 박시균, 권병로, "남북한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 발음과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38집, 29-52, 2003.

[4] 김상준, "남북한 방송보도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비교 연구: 6.15 남북정상회담의 남북한 TV 보도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4권, pp. 147-181. 2002.

[5] J. W. Pennebaker, M. R. Mehl, K. G. Niederhoffer, "Psychological aspects of natural language use : Our words, our selv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pp. 547~577, 2003.

[6] J. W. Pennebaker, "Writing about emotional experience as a therapeutic process", Psychological Science, 8, pp. 162-166, 1997.

[7] J. W. Pennebaker, T. J. Mayne, M. E. Francis, "Linguistic predictors of adaptive berea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pp. 863-871, 1997.

[8] J. W. Pennebaker, M. R. Mehl, K. G. Niederhoffer, "Psychological aspects of natural language use : Our words, our selv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pp. 547~577, 2003.

[9] 이창환, 심정미, 윤애선, "언어적 특성을 이용한 '심리학적 한국어 글분석 프로그램(KLIWC)' 개발 과정에 대한 고찰", 인지과학, 16권, pp. 93-121, 2005.

[10] 박재진, 박종민, 이창환, "광고언어에 대한 통시적 분석: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잡지광고를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19, pp. 7-40, 2008.

[11] 박종민, 박재진, 이창환, "1960년에서 2005년까지 우리나라 광고언어의 시대 차이 분석", 51, pp. 394-423, 2007.

[12] 최윤선, 이창환,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 분석 -취임 및 탄핵 전후로 나눈 단계별 언술의 특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0, No. 1, pp. 573-590, 2008.

[13] J. Cohen,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pp. 155-159, 1992.. Rude, E. M. Gortner, J. W.

Pennebaker, "Language use of depressed and depression vulnerable college students", Cognition & Emotion, 18, pp. 1121-1133, 2004.

이 창 환(Chang Hwan Lee)

[정회원]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1999년 8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07년 9월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언어심리학,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김 경 일(Kyungil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2005년 5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06년 2월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인지과학, 의사결정, 판단 및 추론, 창의성

박 종 민(Jongmin Park)

[정회원]



- 1992년 6월 :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문학사)
- 1999년 12월 : University of Missouri at Columbia 언론학박사
- 2002년 9월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PR, 조직커뮤니케이션